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10.9~10.13)

1. 한·일 WTO 양자협의를 관련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10일 중국 주요 언론들은 10월 11일 한·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관련 WTO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인용 보도
- o 협의는 10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국의 국장급으로 열리며, 이는 수출제한 조치 후 처음 진행되는 고위급 협상이라고 인용 보도¹⁾
- o WTO 제소일로부터 6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 소송 절차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을 소집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²⁾
- 국제재선(国际在线)은 11일 한국의 WTO 제소로 열렸던 한·일 양자회담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용 보도³⁾
- o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협상 결렬 후 “한국이 요구한 추가 협의에 동의했다”며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“예단하여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다”며 신중한 태도를 보임.

2. 한·일 분쟁에 따른 영향 관련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중국경제망(中国经济网)은 한국 매체를 인용하여 일본의 수출규제 후 100일을 살펴본 결과 일본의 손실이 한국보다 크다고 보도⁴⁾
- o 9월 한국의 일본산 자동차 판매액은 60% 감소했으며, 일본 맥주 수입액은

1) 「韩日将在世贸组织机制下进行磋商」, 『环球时报』(2019. 10. 10)

2) 「韩日将就出口管制问题 在日内瓦进行首次双边协商」, 『中国经济网』(2019. 10. 10)

3) 「日韩就出口管制问题未达成一致 将再次磋商」, 『国际在线』(2019. 10. 12)

4) 「日韩贸易战百天 韩媒:我们赢了」, 『中国经济网』(2019. 10. 11)

99.9% 줄어들어 수입이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도

- 수출 제한 조치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, 지난 100일 동안 이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, 한국은 오히려 이번 기회로 소재, 부품, 장비 산업의 과도한 국외 의존도를 깨닫고 정책을 개선하게 됐다고 인용 보도
- 사지책사(史之策史)는 한·일 무역 마찰로 양국 모두 손해를 입었으나, 반도체의 對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이 더 크다고 보도⁵⁾
-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국의 높은 對日 의존도로,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결과는 서로 다른 차원이라고 보도

*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은 40조 원의 손실을 입은 반면 일본의 손실액은 1,7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추산

□ [주요 업계 동향]

- 금십수거(金十数据)는 한·일 양자회담이 결렬되면서 양국 경제(반도체 분야)의 손실은 계속 커지는 반면, 중국 기업들에게는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⁶⁾
-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한국 반도체 상품수출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일본에도 손해를 끼쳤으며, 일본과 한국의 8월 수출은 각각 8.2%, 13.6%씩 하락했다고 보도
- 한·일 경제 분쟁으로 양국 경제는 모두 손해를 보게 되지만, 중국 기업에게는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
- 화람도봉(火蓝刀锋)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산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60% 하락했다며, 한·일 갈등이 자동차 산업으로까지 퍼져 중국 자동차 산업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⁷⁾

5) 「日韩贸易摩擦加剧, 韩国民众集体抵制日货, 日韩经济的损失谁更大」, 『史之策史』(2019. 10. 9)

6) 「最新: 日韩又在半导体领域谈崩了! 多家韩企看向中国供应商」, 『金十数据』(2019. 10. 13)

7) 「日韩斗法持续升温, 日企汽车出口暴跌60%, 中国汽车能抓住机会吗」, 『火蓝刀锋』(2019. 10. 10)

- 중국산 차량은 경제성과 승차감(舒适性) 부문에서 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만, 안정성 부문에서는 이미 독일계 차량 수준이라고 보도
- 만약 한·일 무역 분쟁이 확대되어 동아시아 자동차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 자동차 업계는 그 공백을 메꾸며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